

중심고리를 틀어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사업방법의 본질적내용

김 성 일

주체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중심고리를 틀어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소유하여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전집》 제23권 415페이지)

중심고리를 틀어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한다는것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타격방향, 기본과녁을 바로 설정하고 거기에 최대의 력량을 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의 중심과업에 힘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력량의 분산을 미리 막아낼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사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있으며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문제해결에 힘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력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 다른 고리들도 쉽게 풀리어 힘을 적게 들이고도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타격방향과 투쟁목표를 명확히 확정하고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다.

사업을 작전하고 조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타격방향에 대한 확정이다.

명확한 투쟁목표와 주타격방향이 없는 지휘는 목적지향성을 잃게 된다. 주타격방향이 없이 덮어놓고 전진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의미한다.

중심고리를 틀어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당정책과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한 기초우에서 중심고리를 포착하는것이고 둘째로, 력량을 편성하는것이며 셋째로, 섬멸전, 전격전, 립체전을 벌리는것이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사업전반을 료해하고 거기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야 하며 력량편성을 잘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중심고리는 당의 정책적요구와 군중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사물현상들을 료해하고 분석판단하여야 한다. 투쟁목표와 실현의 근본방도, 해당한 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전략적과업들은 다름아닌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에 명시되어있다.

중심고리는 구체적현실에 존재한다.

일군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전반을 료해하고 거기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야 한다.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제기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중심고리는 사회발전의 전망적요구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중심고리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전반적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대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중심고리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요소이며 전반을 해결할수 있게 하는 돌파구이다.

일면만 생각하고 전체를 보지 않거나 오늘날만 생각하고 래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분적으로 보면 중요한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덜 중요하거나 또는 필요없는것이 있을수 있다.

전체적인 견지에서 잘 타산하지 않고 어느 한 국부적인것만 보고 일을 처리하는것은 위험한 사업방법이며 국가에 많은 손해를 줄수 있다.

한단계의 사업성공에 머물지 않고 그 성과를 사업전반으로 계속 확대할수 있게 중심고리를 잡아내야 한다.

중심고리를 틀어쥐는 주되는 목적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적은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효과있게 쓰겠는가 하는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보고 중심고리를 정한 다음에는 역량편성을 잘해야 한다.

확정된 사업내용과 특성에 맞게 역량을 강력하게 꾸려야 하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예견해야 한다.

역량을 편성하는데서는 핵심성원들을 찾아내고 기수로, 본보기로 내세워야 한다. 긍정적인것을 적극 내세우고 조장시켜 대오의 전반적분위기를 양양시켜야 한다. 특히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꾸리는 사업을 언제나 중시하여야 한다.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혁명과 건설이 전진한다. 강력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해야 한다.

역량의 이동과 통합과정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통일적인 지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재편성, 재조직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역량편성이 끝난 다음에는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섬멸전과 전격전으로 최단기간안에 풀어나가야 한다.

중심고리는 사업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야 전체련쇄의 체계에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다.

섬멸전을 위해서는 선후차를 잘 가리는것이 중요하다. 섬멸전을 벌려나가는데서 선후차를 정하는 문제는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선후차를 옳바로 정할 때 돌파구부터 크게 열수 있고 예견성있는 준비밑에 전투를 벌려 섬멸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선후차를 정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문과 대상을 선차로 내세워야 한다. 이미 결론되어 하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기되면 대담하게 뒤로 미루고 거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선후차가 정해지는데 따라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는것은 로력과 자재, 설비를 비롯한 인적 및 물적요소들을 중요한 사업대상에 집중하여 투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중심고리의 해결은 전격전을 요구한다.

일을 전격적으로 한다는것은 준비된 역량을 총동원하여 제기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는것이다.

중심고리를 틀어쥐라는것은 결코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하라는것이 아니다.

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려면 모든 사업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유능한 지도일군이 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다른 모든 부문에 다 관심을 돌리고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중심고리를 틀어쥐고나가는 사업방법이 모든 사업을 동시에 다같이 밀고나가는 립체전을 요구한다는것을 말한다. 립체전은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해당 시기의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모가 나게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결끼면서도 전반적고리들을 다같이 틀어쥐고 립체전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중심고리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하며 상대적이다. 사물현상들의 련관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그 범위가 달라지면 중심고리도 한 사물현상에서부터 다른 사물현상으로 이동한다.

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는 승리를 튼튼히 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싸워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였다.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공업을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중심고리로 인정하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내세우시였다. 이것은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영화예술을 문학예술부문사업에서 중심고리로 보시고 먼저 영화예술을 추켜세우는데 힘을 넣으면서 문학예술전반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현시기 경공업과 농업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대상건설들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강력한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세인을 놀래우는 속도로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고있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 사업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투쟁방향을 정하는것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일군들은 당정책과 현실적조건, 사회법칙의 요구와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선후차와 경중을 옳게 가리고 관건적인 중요부문,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조직집행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